

KOSDAQ |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메세이상 (408920)

국내 전시산업의 독보적인 상장사

체크포인트

- 전시회 기획 및 주최부터 전시장 운영, 전시부스 시공까지 전시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며 높은 수익성 확보
- 인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자체 전시회를 직접 개최하고 국내 대표 전시 브랜드를 수출하는 등 해외 사업 영역을 확대 중
- 2026년은 전시회 개최 건수 확대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전 개최 효과에 따라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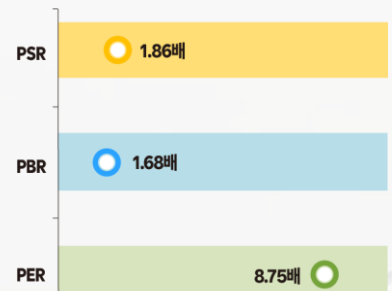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커뮤니케이션서비스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B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커뮤니케이션서비스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메세이상 (408920)

Analyst 조영환 yh.cho@kirs.or.kr

RA 김혜인 hyein.kim@kirs.or.kr

KOSDAQ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전시사업 수직계열화에 기반한 높은 수익성

전시회 기획 및 주최부터 전시장 운영, 전시부스 시공까지 전시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사업 구조를 구축. 밸류체인 내재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시회 개최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과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지며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록 중. 이에 따라 메세이상은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모습(영업이익률 2024년 25.5% → 2025년 26.1% → 2026년 상반기 32.3%)

해외사업으로 비즈니스 영역 확대 중

인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자체 전시회를 직접 개최하고 국내 대표 전시 브랜드를 수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 중. 모회사 이상네트웍스는 킨텍스와 합작 설립한 키넥신을 통해 인도 ICC의 운영권을 2043년까지 확보하였으며, 메세이상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체 전시의 전시 주최 사업을 직접 수행. 인도 내 자체 전시회는 2025년 연간 3회에서 2029년 연간 8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반력동물 전시 브랜드인 메가주를 태국에서 개최하는 등 국내에서 검증된 자체 전시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지속 확대 중

2026년에도 실적 개선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26년 매출액은 879억원(+20.7% YoY), 영업이익은 243억원(+27.7% YoY)으로 전시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1) 견조한 국내 전시 수요와 지방 전시 확대에 힘입어 전시회 개최 건수가 2025년 104건에서 2026년 113건으로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전이 2026년 개최됨에 따라 전년도 미개최에 따른 기저효과가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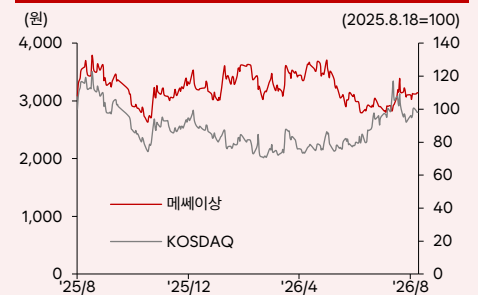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383	508	671	728	879
YoY(%)	37.7	32.6	32.0	8.6	20.7
영업이익(억원)	86	112	171	190	243
OP 마진(%)	22.3	22.0	25.5	26.1	27.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70	53	136	155	202
EPS(원)	164	124	313	359	468
YoY(%)	701	-24.1	152.1	14.4	30.5
PER(배)	24.4	19.2	6.3	9.0	6.7
PSR(배)	4.4	2.0	1.3	1.9	1.5
EV/EBITDA(배)	N/A	5.3	2.2	3.9	2.4
PBR(배)	3.9	1.7	1.2	1.7	1.4
ROE(%)	17.2	10.3	21.0	20.8	23.3
배당수익률(%)	0.0	2.1	5.1	3.7	4.5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26)	3,140원
52주 최고가	3,780원
52주 최저가	2,630원
KOSDAQ (8/26)	82687p
자본금	43억원
시가총액	1,357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4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3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억원
외국인지분율	31.1%
주요주주	이상네트웍스 외 22 인 82.3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81	-68	-125
상대주가	-2.2	339	-15.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회사연혁

메세이상은 전시회 주최, 전시장 운영, 전시부스 설치 등 전시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

메세이상은 전시회 주최를 중심으로 전시장 운영과 전시부스 디자인/설치까지 전시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한 코스닥 상장사로, 2018년 이상네트웍스의 전시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동사의 전시사업은 2008년 이상네트웍스가 건축/인테리어 전시회인 경향하우징페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시회 인수와 개최 지역 확대를 통해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9년에는 이상네트웍스의 종속회사 이상엠앤씨가 메세이상을 흡수합병한 이후 상호를 메세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SPAC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전시사업 초기 건축/인테리어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한 전시 포트폴리오는 반려동물과 육아, 캠핑/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2013년 K-PET FAIR를 개최하고 2014년 코베 베이비페어와 고카프를 인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궁디팡팡 캣페스타의 주회사를 인수하며 B2C 전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과 KHf(국제병원/헬스테크 박람회) 등 방산과 의료 분야로 B2B 전시 포트폴리오도 확대하였다.

전시회 기획/주최를 중심으로 전시장 운영과 부스 시공까지 사업 영역도 확대하였다. 2020년 수원메세 개관을 통해 전시장 운영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주오스코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전시장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다. 같은 해 전시부스 디자인/설치 전문 자회사인 빌드만을 설립해 기존 외주 중심의 부스 시공을 내재화하면서 전시회 기획/주최부터 전시장 운영과 부스 시공까지 전시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축적한 전시 기획/운영 역량과 자체 전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모회사 이상네트웍스가 킨텍스와 합작 설립한 키넥신을 통해 인도 뉴델리 ICC(야쇼부미)의 운영권을 2043년까지 확보한 가운데, 메세이상은 2024년 ICC에서 대한민국산업전시회를 개최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026년에는 KoINDEX와 뷰티썸 인디아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한편, 태국에서도 MEGAZOO in Thailand를 개최하는 등 자체 전시회의 해외 개최와 국내 전시 브랜드의 해외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메세이상 연혁

2008~2021	2022~2023	2024~
2008.01 법인 설립(2008.01.31) 2016.12 이가전람 흡수합병 최대주주 변경: 김중현 →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 2018.11 본점 이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이예스타워 2019.02 메세이상 흡수합병 상호변경: 주식회사 메세이상 2020.07 수원메세 전시장 개관 2021.01 동영상 기반 B2B 중개 플랫폼 '링크온biz' 신규 런칭 2021.11 'DX Korea 2022' 전력지원체계 전시관 운영 전시관 주관 사업자 선정 제1회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 개최(KINTEX)	2022.06 '메세이상-실란' 메타버스 전시&컨퍼런스 플랫폼 공동개발 MOU 체결 2022.07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022.09 DX Korea 2022 전력지원체계 전시관 개최 2022.1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3.03 코스닥시장 합병 상장 2023.04 종속회사 (주)인터메스타 지분 60% 취득 2023.06 종속회사 (주)진콘 지분 60% 취득	2024.01 자회사 (주)빌드만 설립 2024.01 미베 베이비엑스포 주최/운영권 양수 2024.04 종속회사 (주)인터메스타 지분 40% 추가 취득(지분율 100%) 2024.05 종속회사 (주)진콘 지분 0.63% 추가 취득(지분율 60.63%) 2024.06 청주오스코 위탁운영 수탁기관 선정 '청주오스코사업단' 지사 설립(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2024.10 KADEX 2024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 개최(개롱대) 2024.11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개최(인도ICC) 2025.05 종속회사 (주)진콘 지분 0.22% 추가 취득(지분율 60.85%) 2025.05 종속회사 MESSE ESANG INDIA PRIVATE LIMITED 설립(지분율 100%) 2025.11 베베루나 브랜드 사업권 양수 및 상품 판매사업 개시 2026.03 종속회사 (주)진콘 지분 전량 매각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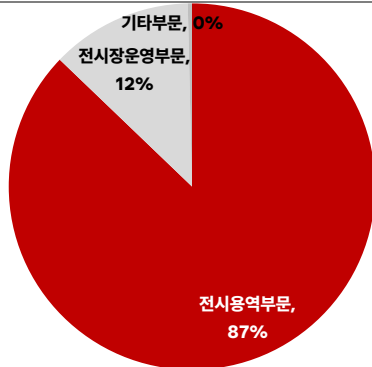
주요 사업

전시용역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사업구조

메세이상은 전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시회 기획/주최부터 전시부스 디자인/설치, 전시장 운영까지 전시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별도법인이 전시회 기획/주최와 전시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종속회사인 수원메세를 통해 전시장 운영, 빌드만을 통해 전시부스 디자인/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인터페스타(구 캣페스타)를 통해 반려묘 용품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표 반려묘 전문 박람회인 '궁디팡팡 캣페스타'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전시관리 시스템과 산업별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전시 운영과 고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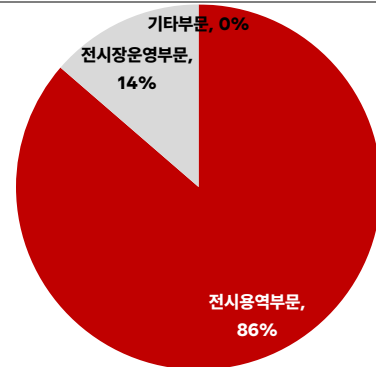
2025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전시용역부문 87%, 전시장운영부문 12%, 기타부문 0.4%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이익 비중은 전시용역부문 86%, 전시장운영부문 14%로 전시용역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사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메세이상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2025년 기준)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비중(2025년 기준)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B2B/B2C 전시회 개최, 부스 시공, IT 플랫폼 개발 등으로 전시산업 밸류체인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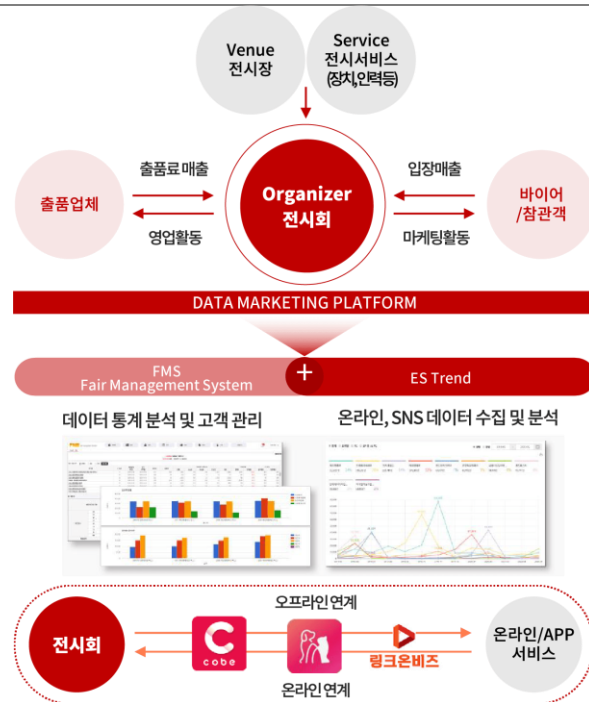
전시용역부문(매출비중 87%)

전시용역부문은 전시사업의 핵심 사업부문으로 참가기업과 참관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획/개최하며 참가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출품료(부스 임대료)와 참관객 입장료가 주요 수익원이다. 건축/인테리어 분야의 코리아빌드, 반려동물 박람회인 메가주, 케이펫페어, 궁디팡팡 캣페스타, 육아 박람회인 코베 베이비페어, 캠핑 전문 전시회인 고카프를 비롯해 방위산업, 의료, 치안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B2B/B2C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빌드만을 통해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조립부스와 독립부스의 설계/제작/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빌드만은 동사가 주최하는 전시회의 부스 시공 물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시회 기획/주최부터 부스 시공까지 전시사업의 주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과 지자체, 학회 등으로부터 국제회의와 포럼, 컨퍼런스 등의 기획/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PCO(국제회의기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전시사업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IT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기업의 부스 신청부터 계약, 영업관리, 참관객 관리까지 지원하는 전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바이어와 참가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과 무인 키오스크 기반 출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육아, 캠핑 등 산업 카테고리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장권 예매, 참관객 관리와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세이상 전시사업 구조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수원메세 임차 운영과 청주오스코 위탁운영 통한 매출 발생

전시장운영부문(매출비중 12%)

전시장운영부문은 수원메세 임차 운영과 청주오스코 위탁운영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종속회사 수원메세는 KCC가 소유한 수원역 인근 전시장을 장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홀과 9,080㎡ 규모의 전시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메세이상이 주최하는 자체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외부 전시 주최사와 학회, 행사 운영사 등에 전시 공간을 대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체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일정과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자체 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외부 행사를 유치해 대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청주오스코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소유한 3개 홀, 10,031㎡ 규모의 전시장으로, 동사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98.8억원 규모의 위탁운영 계약을 기반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 행사 유치 등을 수행하고 위탁운영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수원메세와 함께 자체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장 인프라로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일정과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전시회 개최와 기존 전시회의 지역 확장에도 활용하고 있다.

기타부문(매출비중 0.4%)

기타부문은 상품판매와 용역대행 등 부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 베베루너를 통해 화장품

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 온라인 광고와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 등 용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세이상 수원메세 관련 상세

SUWON MESSE	
전시장명	수원메세(SUWON MESSE)
운영법인	수원메세 (메세이상 100%)
시설규모	전시장 9,080㎡ 회의실 1개실(178㎡)
운영기간	2020~2032년까지(12년간)
시설위치	수원시 권선구

자료: 메세이상,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청주오스코 관련 상세

CHEONGJU OSCO	
전시장명	청주OSCO(CHEONGJU OSCO)
위탁기관	충청북도 및 청주시 (공동위탁)
시설규모	전시장 10,031㎡ 회의실 3,830㎡
운영기간	2027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시설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자료: 메세이상,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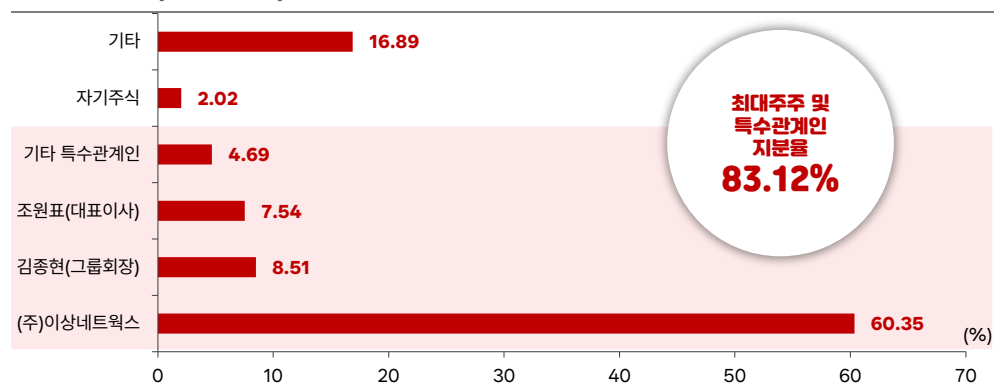
최대주주(이상네트웍스)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1.12%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메세이상의 최대주주는 이상네트웍스로 60.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금에스티(이상네트웍스의 최대주주) 회장인 김종현(8.51%), 조원표 대표이사(7.54%) 등을 포함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1.12%이며, 자기주식 2.02%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는 김종현 회장 일가 -> 황금에스티 -> 이상네트웍스 -> 메세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김종현 회장 일가는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황금에스티 지분 56.42%를 보유하고 있으며, 황금에스티는 이상네트웍스 지분 37.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이상네트웍스는 2018년 전시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메세이상을 설립한 후 현재 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중 조원표는 메세이상의 대표이사이자 이상네트웍스의 공동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조원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이상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08년 건축박람회 경향하우징페어 인수를 계기로 전시산업에 진출한 후 전시사업을 확대해 현재의 메세이상으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그룹 창업주인 김성주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종현은 황금에스티(이상네트웍스의 최대주주)의 대표이사이자 이상네트웍스 사내이사로서 그룹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다.

메세이상 주주현황(1H26 말 기준)



자료: 메세이상,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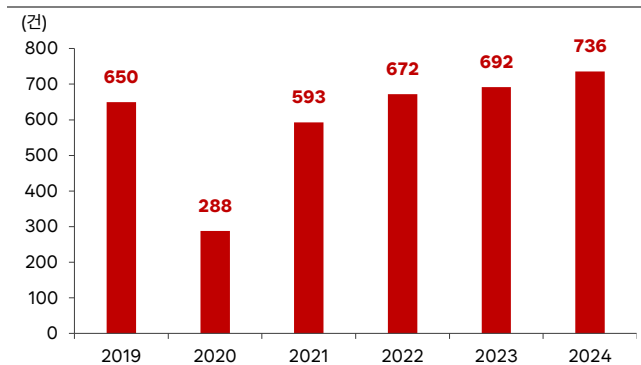
산업 현황

전시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인프라 확대

국내 전시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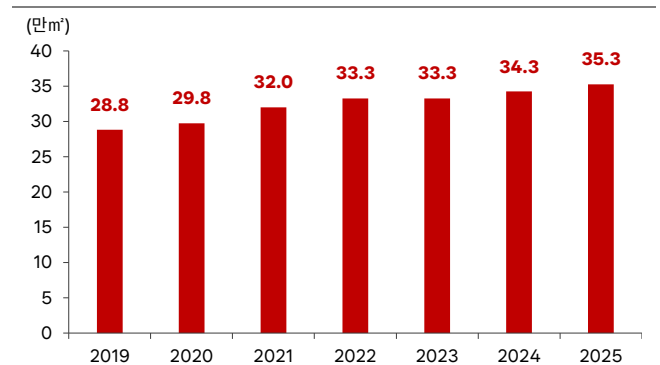
국내 전시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산업 특성과 산업 구조 변화, 정부의 MICE 산업 육성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전시회 개최 건수는 2019년 650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288건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대면 행사의 정상화와 기업들의 오프라인 마케팅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24년 736건까지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국내 전시면적 역시 2020년 수원메쎄(0.9만㎡), 2021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0.8만㎡), 2024년 코엑스 마곡(0.7만㎡), 2025년 청주오스코(1.0만㎡) 등 신규 전시장이 순차적으로 개관하는 등 전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2019년 약 28.8만㎡에서 2025년 약 35.3만㎡까지 확대되었다.

국내 전시건수 추이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메세이상,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전시면적 추이



자료: 국내전시산업통계, 메세이상,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과거 종합 전시회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특정 산업으로 세분화된 전시회 확대 중

전시산업은 참가기업과 참관객이 한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오프라인 마켓플레이스로, 기업에는 신규 거래처 확보와 브랜드 홍보 기회를, 참관객에게는 제품 체험과 최신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면 마케팅 플랫폼이다. 최근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시연과 구매 상담,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은 여전히 대면 환경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시회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산업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역시 전시산업 성장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 전시회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방위산업, 반도체, AI, 바이오 등 산업별 전문 전시회와 반려동물, 육아, 캠핑 등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전시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시회 개최 건수 증가와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마케팅보다 실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전문 전시회를 선호하면서 산업별 전문 전시회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전시산업은 전시장 공급 부족에 따른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순전시면적 기준 국내 전시회의 36%가 서울에서, 70%가 수도권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서울 코엑스(29%)와 경기 킨텍스(24%) 등 상위 2개 전시장이 전체 전시의 53%를 차지하는 등 대형 전시장에 전시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 전시장의 경우 신규 전시회가 원하는 일정에 전시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형 B2B 전시회는 제한된 대형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반면 중소형 B2C 전시회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전시장을 활용하는 등 시장이 이원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시 인프라 확대와 정부 차원의 전시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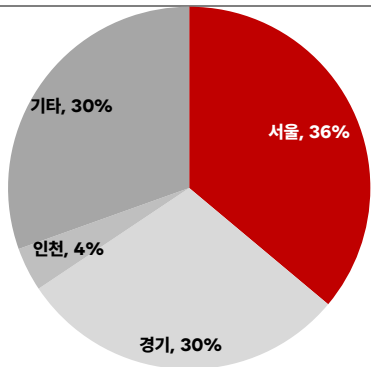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국내 전시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전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11만㎡), 일산 KINTEX 제3전시장(7만㎡), 성남 백현 MICE(3.5만㎡), 부산 BEXCO 제3전시장(2.2만㎡) 등 최소 8개 이상의 대형 전시장 신/증설 프로젝트가 2032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시장 수용 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회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등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객은 거래 상담과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관광객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수요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시 산업은 관광/숙박/교통/외식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를 출범하고, 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수립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 전시회 육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시 브랜드 개발, 국내 전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로드맵은 2026년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전시산업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시회 운영 과정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무인 키오스크, 참가기업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등 다양한 IT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으며, 전시 종료 이후에도 참가기업과 참관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와 오프라인 전시회/온라인 B2B 플랫폼을 연계하는 O2O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산업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참가기업과 참관객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추적·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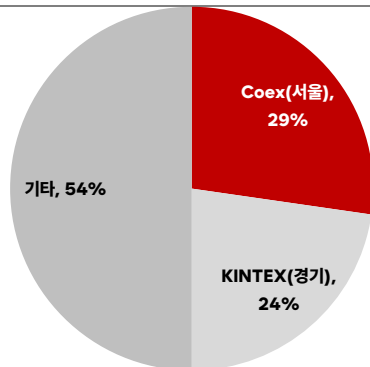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산업 환경 변화는 건축/인테리어, 반려동물, 육아, 방위산업, 의료, 치안산업 등 다수의 자체 전시 브랜드를 보유하고 전시 기획/주최부터 전시장 운영, 부스 시공까지 수직계열화된 사업 구조를 구축한 메세이상의 사업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전시 지역별 점유율(2024년말 기준)



주: 국내 19개 전시관 대상 / 순전시면적 기준 점유율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전시관별 점유율(2024년말 기준)



주: 국내 19개 전시관 대상 / 순전시면적 기준 점유율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요 전시장 개발 프로젝트 현황

명칭	지역	신규 전시면적(만㎡)	예상 완공시기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서울	11	2032년
일산 KINTEX 제3전시장	경기	7	2028년
성남 분당 백현 마이스	경기	3.5	2029년
부산 BEXCO 제3전시장	부산	2.2	2027년
인천 송도컨벤시아 3단계	인천	1.4	2032년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전북	1	2028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	0.9	2027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POEX)	경북	0.7	2026년

주: 전시면적 기준 코엑스는 3.8만㎡, 킨텍스는 10.9만㎡ 수준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전시사업 수직계열화에 기반한 높은 수익성

**전시사업 내 밸류체인 확대,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높은 수익성 확보 중**

메세이상은 전시회 기획 및 주최부터 전시장 운영, 전시부스 시공까지 전시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시 주최사가 전시장 대관과 부스 시공 등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동사는 자체 전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그룹 내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며 전시사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내부에서 흡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수직계열화는 원가 절감뿐 아니라 전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신규 전시회 확대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전시 밸류체인의 내재화는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전시 주최 사업자 586개사의 202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4.5% 수준에 불과한 반면, 메세이상은 22.0%를 기록하며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후 전시사업 밸류체인 내재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시회 개최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영업이익률 2024년 25.5% → 2025년 26.1% → 2026년 상반기 32.3%).

수직계열화의 출발점은 경쟁력 있는 전시 콘텐츠 확보에 있다. 메세이상은 건축/인테리어 분야의 코리아빌드, 반려동물 분야의 메가주, 육아 분야의 코베 베이비페어, 캠핑 분야의 고카프 등 자체 기획과 브랜드 M&A를 통해 20개 이상의 전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 내 유망 전시 브랜드와 사업권을 지속적으로 인수하며 전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개최 건수(86회)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12%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총 104회(+21% YoY)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전시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자체 전시 브랜드와 공동 개최 전시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안정적인 참가기업과 참관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시장 운영과 부스 시공 등 후방 사업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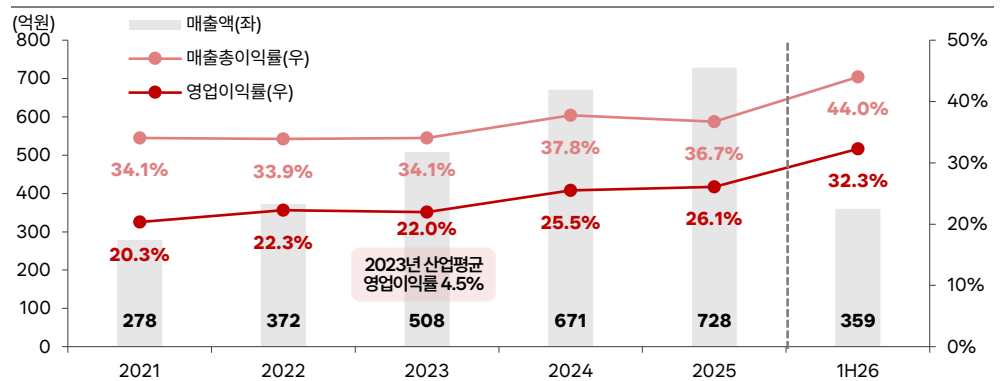
자체 전시장 운영 역시 메세이상의 차별화 요소다. 국내 전시산업은 코엑스와 킨텍스 등 일부 대형 전시장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원하는 일정에 전시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메세이상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국내 최초의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세를 개관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주오스코(OSCO)의 위탁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며 운영 전시장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 전시장 대관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구조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신규 전시회를 보다 유연하게 기획/개최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하였다. 또한 자체 전시회뿐 아니라 외부 행사 유치를 통한 전시장 운영 수익까지 창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시부스 디자인/설치 전문 자회사인 빌드만을 설립하며 부스 시공 부문까지 내재화하였다. 기존에는 전시회 규모가 확대될수록 외부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였으나, 빌드만 설립 이후 기본부스 시공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Q26 기준 전체 기본부스 시공비의 77.8%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시공업체로 유출되던 비용을 내부화하면서 전시회 규모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스

시공 내재화는 전시 현장의 품질 관리와 납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세이상은 전시산업을 단순한 오프라인 행사 사업이 아닌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참가기업 관리 시스템(FMS),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BMS), 산업 트렌드 분석 시스템(ES Trend)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육아/캠핑 등 산업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장권 예매와 참가기업 대상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인 키오스크와 참가기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전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시 종료 이후에도 참가기업과 참관객 데이터를 활용한 O2O(Online to Offline) 기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IT 플랫폼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세이상 수익성 추이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전시사업 관련 성과 및 주요 브랜드

2025년 전시 개최 결과

--	--	--	--	--	--	--	--

카테고리 현황

건축/인테리어	반려동물	레저	설비/의료산업/IT/메타버스 등 B2B전시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전시사업 수직계열화 효과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해외사업으로 비즈니스 영역 확대

국내에서 확보한 전시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인도,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사업 영역 확대 중

메세이상은 국내 전시산업에서 구축한 자체 전시 브랜드와 전시 기획/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자체 전시회를 직접 개최하고 국내에서 검증된 전시 브랜드를 수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사업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국제전시장 ICC(야쇼부미)를 주요 거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ICC는 총 전시면적 약 30만㎡ 규모의 아시아 5위권 대형 전시장으로, 인도 정부가 국가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다. 모회사 이상네트웍스는 국내 최대 전시장 운영사인 킨텍스와 합작 설립한 키넥신(KINEXIN)을 통해 2043년까지 ICC의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며, 메세이상은 2025년 5월 100% 출자한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자체 전시회의 기획/운영과 참가기업 유치 등 전시 주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2024년 11월 ICC에서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를 개최하며 인도 현지 전시회 개최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5년 연간 3회의 자체 전시회를 시작으로 2026년 2회, 2027년 6회, 2028년 7회, 2029년에는 8회의 자체 전시회를 인도 현지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전시뿐만 아니라 뷰티 등 신규 전시 카테고리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 ICC에서 뷰티 관련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소비재 분야로 현지 전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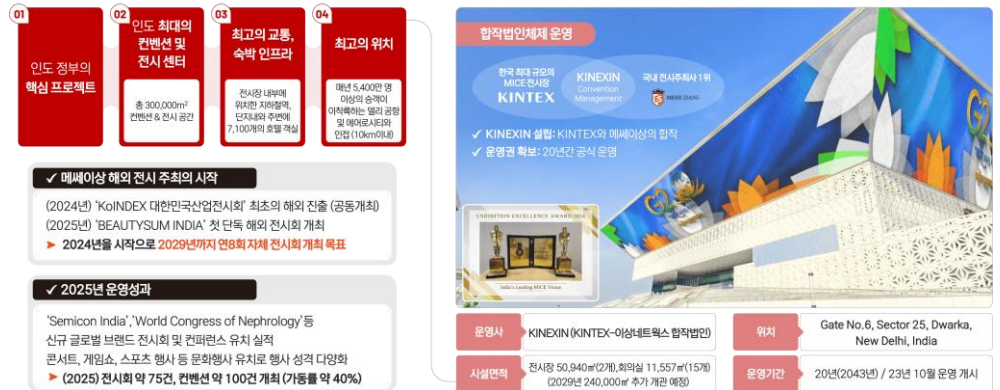
국내에서 검증된 자체 전시 브랜드의 해외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반려동물 전시 브랜드인 메가주(MEGAZOO)다. 메세이상은 2024년 태국 최대 전시장 운영사인 IMPACT와 협력해 MEGAZOO in Thailand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반려동물 기업 약 50개사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만에서도 현지 전시 주최사와 협력해 국가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자체 전시 브랜드와 국내 참가기업을 연계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K-뷰티를 비롯해 반려동물, 육아 등 한국 소비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전시회의 해외 확장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세이상은 국내에서 시장 지위를 확보한 메가주, 코베 베이비페어 등 다수의 소비자 중심 전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전시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에서는 뷰티 등 신규 전시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중장기

적으로 자체 전시회 개최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해외 사업 확대는 향후 동사의 신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ICC 국제전시장 관련 상세내용

ICC는 인도 뉴델리의 Dwarka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컨벤션 및 전시 센터로, 최적의 교통 연결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단지입니다.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글로벌 전시사업 목표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리뷰

전시회 개최건수 증가, 청주
OSCO 운영 관련 매출 발생 영향
등으로 실적 개선

메세이상의 2025년 매출액은 728억원(+8.6% YoY), 영업이익은 190억원(+11.1% YoY)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실적이 개선되었다. 이는 1) 충청북도와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청주 OSCO 운영 관련 매출이 2Q25부터 신규 반영된 가운데, 2)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전 관련 매출 공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전시 수요와 지방 전시 확대에 힘입어 전시회 개최 건수가 2024년 86건에서 2025년 104건으로 YoY 20.9% 증가한 데 기인한다. 특히 광고선전비와 급여 등 판관비 절감 효과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은 26.1%(+0.6%p YoY)로 상승하며 수익성도 전년대비 개선되었다.

1H26 실적 리뷰 및 2026년 실적 전망

전시회 개최건수 증가에 따른
전시용역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

1H26 실적 리뷰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359억원(+17.4% YoY), 영업이익은 116억원(+19.0% YoY)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실적이 개선되었다. 견조한 전시 수요와 지방 전시 확대에 힘입어 전시회 개최 건수가 1H25 47건에서 1H26 56건으로 YoY 19.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시용역부문 매출액도 312억원(+13.3% YoY)으로 증가하며 전사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다.

전시회 개최건수 증가,
국제방위산업전 개최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매출액은 879억원(+20.7% YoY), 영업이익은 243억원(+27.7% YoY)으로 전시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견조한 국내 전시 수요와 지방 전시 확대에 힘입어 전시회 개최 건수가 2025년 104건에서 2026년 113건으로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전이 2026년 개최됨에 따라 전년도 미개최에 따른 기저효과가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27.6%(+1.5%p YoY)로 상승하며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율도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시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M&A 전략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 브랜드는 단기간 내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동사는 자체 기획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전시 브랜드와 사업권을 인수하는 전략을 병행해 왔다. 실제로 코베 베이비페어, 고카프, 핸드아티코리아, 국제캐산업박람회, 펫서울, 궁디팡팡 캣페스타, 미베 베이비엑스포 등 다양한 전시 브랜드와 사업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전시 포트폴리오를 확대 왔으며, 향후에도 유망 전시 브랜드를 중심으로 M&A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구축해 온 전시사업 밸류체인 역시 실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전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전시 기획/주최뿐 아니라 빌드만을 통한 부스 시공, 수원메세/청주 OSCO 등 자체 전시장 운영까지 전시사업 전반을 내재화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회 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스 시공 내재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와 자체 전시장 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수직계열화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메세이상 전시회 일정

20메씨이상 26전시회 일정

*운영에 따라 일정변동가능

[illegible]

자료: 메썬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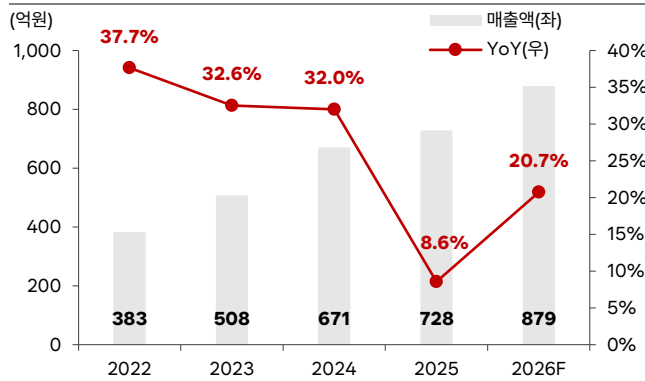
메세이상 실적 테이블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83	508	671	728	879
(YoY)	37.7%	32.6%	32.0%	8.6%	20.7%
전시용역부문	372	492	659	653	789
전시장운영부문	19	23	37	105	103
기타부문	1	5	7	16	42
연결조정	-8	-12	-33	-46	-55
매출총이익	132	173	253	267	331
(YoY)	39.7%	30.7%	46.2%	5.5%	24.0%
영업이익	86	112	171	190	243
(YoY)	51.2%	30.6%	53.1%	11.1%	27.7%
영업이익률	22.3%	22.0%	25.5%	26.1%	27.6%
세전이익	86	76	166	187	242
지배주주순이익	70	53	136	155	201
(YoY)	70.1%	-23.7%	154.2%	14.4%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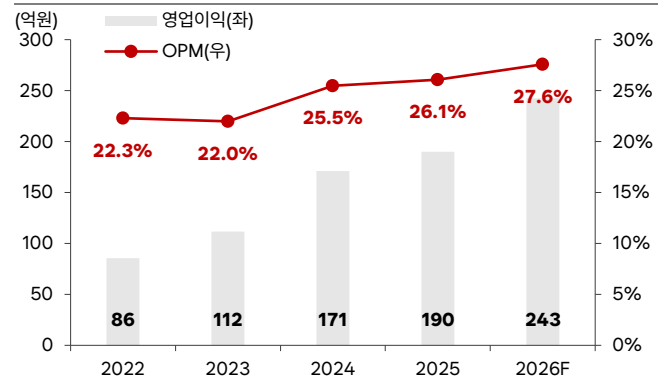
자료: 메세이상,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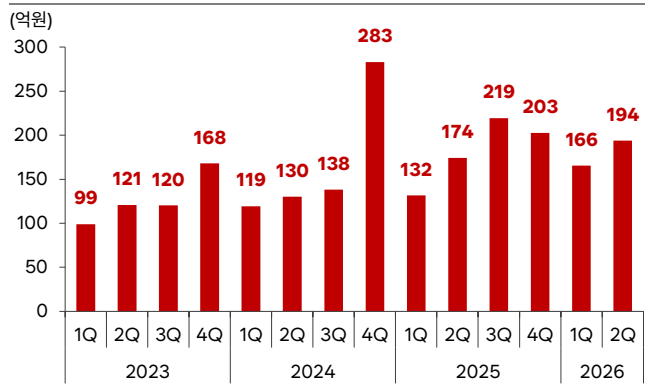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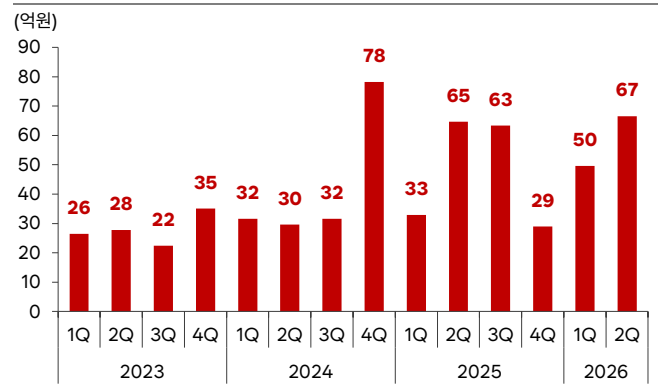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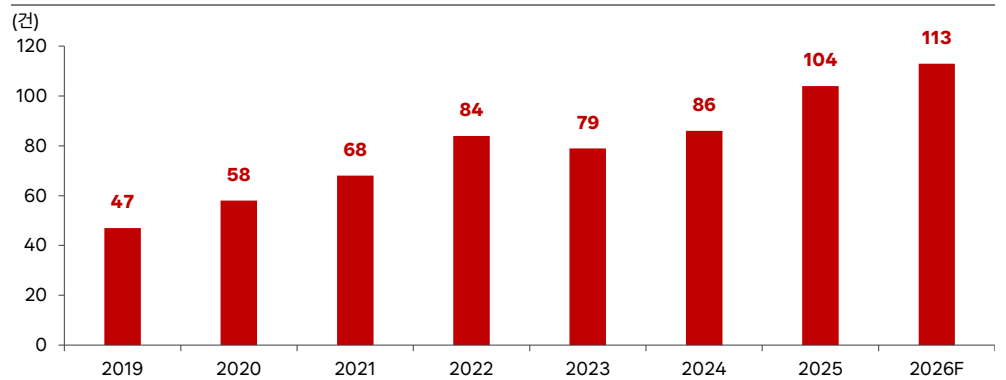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연결기준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전시건수 추이 및 전망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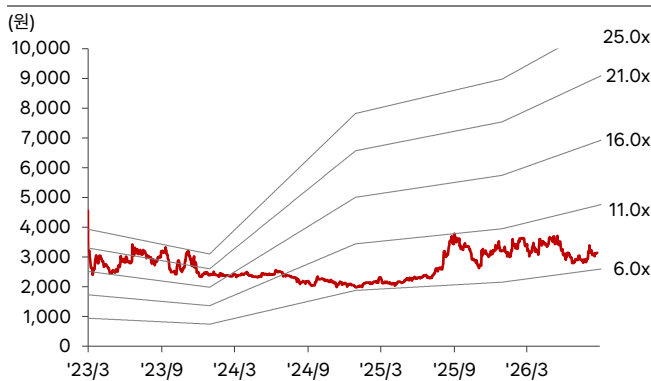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긍정적,
2026년 예상 배당수익률 4.5%
수준

당사 추정 기준 메세이상의 2026년 예상 PER은 6.7배로, 현재 주가는 2023년 상장 이후 형성된 PER 밴드(6~25배)의 최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다. 상장 초기에는 PER이 25배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오버행 우려 등으로 주가가 조정된 가운데 지속적인 EPS 성장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상장 이후 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아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동사의 직접적인 peer그룹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사의 2026년 예상 ROE는 23.3%로 코스닥 평균 12.45%를 상회하는 반면 PBR(1.4배)은 코스닥 평균 2.76배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자본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비교적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긍정적이다. 당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별도기준 배당성향 20% 이상을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상장 이후 최근 3년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에도 순이익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량한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감안한 2026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4.5% 수준(연결기준 배당성향 30%를 가정)으로, 이는 2025년 기준 코스닥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2.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배당주 관점에서도 현재 동사의 주가 수준은 긍정적인 구간으로 판단된다.

메세이상 PER밴드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세이상 PBR밴드



자료: 메세이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외부 충격에 따른 전시사업 실적 변동성

**감염병 확산과 같은 외부 충격에
따라 실적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메세이상이 영위하는 전시사업은 오프라인 행사 개최와 참가기업/참관객 유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감염병 확산과 같은 외부 충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내 전시회 개최 건수는 2019년 650건에서 2020년 288건으로 55.7% 감소하였으며, 메세이상의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324억원에서 188억원으로 41.8% 감소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감염병 재확산이나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 행사 개최가 제한될 경우, 전시회 개최 지연/취소와 참가기업 및 참관객 감소에 따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사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기반 비대면 등록 시스템과 산업별 애플리케이션, O2O 플랫폼 등 디지털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낮은 유통주식 비중

**1H26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
17.94%로 비교적 낮은 수준**

또 다른 리스크 요인 중 하나는 낮은 유통주식 비중이다. 2026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의 실질 유통주식 비중은 소액주주 지분율 기준 17.94% 수준이며, 일반적인 상장사의 평균 유통주식 비중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식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통주식 비중이 제한적인 종목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호가창이 얇아, 비교적 소규모의 매매 주문에도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 요인에 의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매도하려 할 경우 시장에서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금성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편입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과 거래대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주식 비중이 적은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83	508	671	728	879
증가율(%)	37.7	32.6	32.0	8.6	20.7
매출원가	251	335	418	461	548
매출원가율(%)	65.5	65.9	62.3	63.3	62.3
매출총이익	132	173	253	267	331
매출이익률(%)	34.6	34.1	37.8	36.7	37.7
판매관리비	47	61	82	77	89
판매비율(%)	12.3	12.0	12.2	10.6	10.1
EBITDA	98	124	187	209	265
EBITDA 이익률(%)	25.4	24.4	27.9	28.7	30.1
증가율(%)	38.7	27.2	50.8	11.6	26.8
영업이익	86	112	171	190	243
영업이익률(%)	22.3	22.0	25.5	26.1	27.6
증가율(%)	51.2	30.6	53.1	11.1	27.7
영업외손익	-0	-35	-5	-3	1
금융수익	7	15	18	16	20
금융비용	7	8	9	9	9
기타영업외손익	-0	-42	-15	-11	-1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86	76	166	187	244
증가율(%)	63.3	-10.6	116.8	12.7	30.5
법인세비용	16	21	31	32	42
계속사업이익	70	56	135	155	20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0	56	135	155	202
당기순이익률(%)	18.2	10.9	20.1	21.2	23.0
증가율(%)	70.1	-20.5	142.8	14.8	30.5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70	53	136	155	202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4	92	152	197	223
당기순이익	70	56	135	155	202
유형자산 상각비	10	10	14	17	17
무형자산 상각비	2	2	2	1	5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3	-14	-9	26	-0
기타	-1	38	10	-2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3	81	-66	-389	-10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6	0	-3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	-9	-35	-3	-20
기타	64	90	-25	-386	-8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	-4	-32	-48	-48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3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22	-43	-51
기타	-3	-4	-10	-5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3
현금의증가(감소)	154	169	54	-240	75
기초현금	114	268	437	491	252
기말현금	268	437	491	252	327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335	485	571	702	871
현금성자산	268	437	491	252	327
단기투자자산	32	1	16	386	466
매출채권	18	19	29	23	28
재고자산	0	0	0	3	4
기타유동자산	17	28	34	38	45
비유동자산	217	232	273	264	262
유형자산	4	10	40	35	35
무형자산	147	157	157	156	151
투자자산	9	11	18	19	22
기타비유동자산	57	54	58	54	54
자산총계	552	717	844	966	1,132
유동부채	59	65	92	115	139
단기차입금	0	0	1	1	1
매입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59	65	91	114	138
비유동부채	52	57	56	55	5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2	0	0	0
기타비유동부채	52	55	56	55	55
부채총계	111	122	148	170	194
자배주주지분	440	592	696	795	938
자본금	41	43	43	43	43
자본잉여금	171	268	263	264	264
자본조정 등	0	-1	-6	-20	-2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229	282	396	508	651
자본총계	440	594	696	795	938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24.4	19.2	6.3	9.0	6.7
P/B(배)	3.9	1.7	1.2	1.7	1.4
P/S(배)	4.4	2.0	1.3	1.9	1.5
EV/EBITDA(배)	N/A	5.3	2.2	3.9	2.4
배당수익률(%)	0.0	2.1	5.1	3.7	4.5
EPS(원)	164	124	313	359	468
BPS(원)	1,033	1,370	1,610	1,840	2,170
SPS(원)	899	1,185	1,552	1,684	2,034
DPS(원)	0	50	100	120	140
수익성(%)					
ROE	17.2	10.3	21.0	20.8	23.3
ROA	13.4	8.8	17.3	17.1	19.2
ROIC	47.5	55.4	80.6	91.3	135.5
안정성(%)					
유동비율	567.3	743.1	622.8	608.9	626.7
부채비율	25.3	20.5	21.3	21.4	20.7
순차입금비율	-54.6	-62.7	-62.6	-71.7	-77.1
이자보상배율	12.2	13.3	19.4	21.5	27.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7	0.8	0.9	0.8	0.8
매출채권회전율	18.9	27.6	27.8	27.6	34.1
재고자산회전율	1,117.2	N/A	N/A	466.5	255.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메세이상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28	메세이상(408920)-국내 전산산업의 독보적인 상장사
2024.05.31	메세이상(408920)-국내 최초로 상장한 전시주최 및 대행사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간접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